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만든 최고의 종합선물세트

오페라 〈마술피리〉

The Magic Flute

1791년 서른다섯 살이 된 모차르트는 편치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비엔나로 와서 활동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잘츠부르크 황실의 신임과 지지도 예전 같지 않았고 작곡 의뢰도 별로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로 인한 부채가 문제였다. 당시 모차르트의 수입이 결코 적은 편은 아니었으나, 부인 콘스탄체도 모차르트 본인도 아무렇게 재정 관리를 할 줄 몰랐던 까닭에 항상 궁핍에 허덕였다. 모차르트의 건강 또한 좋지 않았다.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던 모차르트는 어떻게든 작곡가로서 큰 성공을 거둘 기회를 다시 한번 찾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모차르트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작곡된 작품이 바로 오페라 〈마술피리〉다.

〈마술피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오페라가 아니라 징슈필(Singspiel) 장르다. 징슈필은 독일어로 된 민속적이고 소박한 연극 형태로 희극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징슈필은 서민들을 위한 대중 악극으로 경시되어, 이름 있는 작곡가가 징슈필에 관심을 보이는 일은 별로 없었다. 이 징슈필을 최고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가 바로 모차르트였다. 모차르트가 징슈필 장르를 작곡해서 성공을 거둔 것은 베토벤과 베버, 바그너 등 후대 독일어권 출신 작곡가들이 징슈필 장르를 작곡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환상과 마법을 다룬 〈마술피리〉는 온 가족이 함께 보거나 아이들을 위한 작품으로 수정돼 공연되는 일이 많지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주제가 녹아 있다. 모차르트는 그의 모든 음악적 스타일과 재능을 이 작품에 쏟아부



었다. 이탈리아 희극 오페라의 코믹한 요소, 경건한 종교음악의 색채, 정극 오페라의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음악, 징슈필 장르의 소박하고 민속적인 전통 등 마치 모차르트 오페라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이다. 흔히 〈마술피리〉에 대해

말할 때 밤의 여왕의 화려한 아리아만을 얘기하기 쉽지만, 이 작품은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캐릭터를 담고 있다. 드러나는 장치들이 너무 많아서 남녀 주역들은 오히려 묻히는 경향이 있을 정도다. 이 작품은 당시 유행하던 이국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했고 여기에는 모차르트가 회원으로 있었다던 프리메이슨 단체의 비밀스러운 의식과 강령을 등장시켰다. 프리메이슨과 이 작품의 관계와 상징을 두고 호사가들의 여러 의견이 오늘날까지도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차르트가 꿈꾸던 근대적 계몽사회의 이상을 그의 다채로운 음악 속에 완전히 녹여냈다는 점이다. 눈부신 음악적 장치 덕분에 모든 캐릭터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게 됐고 지혜와 사랑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결말이 웅장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1791년 9월 30일 모차르트의 지휘로 초연된 〈마술피리〉는 대성공을 거둬 100회를 넘겨 공연하는 기록을 세웠지만, 모차르트는 공연 2달 뒤부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돼 같은 해 12월 5일 세상을 떠났다. 〈마술피리〉는 천재 모차르트가 인류에게 남긴 알찬 선물상자다.